테마칼럼 | 여성세계 | 정치프리즘 | 정세읽기 | 문화향기

광주가 나서야 할 때다

이 연 홍
〈뷰스앤뉴스 공동대표〉

"
광주가
적임자다.
최대 피해자였다.
그러면서도 용서와 화해로
노벨평화상을 만들어낸
정치세력이었다. ….
이제 광주가 나서야
할 때가 된 듯하다.
"

2002년 대통령 선거를 보자. 무엇이 선거의 핵심 화두였나. 새 정치 대 낡은 정치의 대결이었다. 그것은 이회창씨가 공들여서 설정한 화두였다. 자신의 대쪽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수였다. 새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상대 개념이었다. 물론 이회창씨가 DJ보다 새로웠을지는 모르겠다. 우선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무엇이 선거의 핵심 화두였나

그러나 이회창씨는 보다 새로운 정치한테 당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회창씨 보다 훨씬 새롭게 보였다. 결국 이회창씨는 DJ만 생각하다가 지고 만 거다. DJ와 겨룬다고 착각한 거다.

자신이 애써 만들어낸 화두 속에 묻히고 말았다. 자기 칼에 자기가 맞았다. 만약 다른 화두였다 가정해 보자. 예컨대 보수 대 진보의 대결 말이다.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 모른다. 물론 이회창씨는 선거 막바지에 좌우 대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낡은 정치만 부각시키고 말았다. 이미 새 정치는 선거의 핵심화두였다. 좌우대결은 색깔론으로 비쳐졌던 거다. 선거 화두는 그처럼 선거 전체를 지배한다. 어느 선거나 그랬다.

그렇다면 선거의 핵심 화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선은 후보 진영의 부단한 작업이 필요하다. 자신의 이미지와 시대상황을 배합하는 것이다.YS의 군정종식이 좋은 예였다.

가장 중요한 건 시대상황이다. 왜 지난번 대선에서 새 정치가 먹혔을까. 그것은 낡은 정치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이른바 3김 정치 말이다. 3김 정치의 졸업을 시대가 원했던 거다.

그렇다면 내년 대선의 화두는 무엇일까. 결국은 지금 상황에 대한 반작용이 그것을 만들어낼 거다.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다.

현재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보자. 전자는 민주화 세력을, 후자는 산업화 세력을 자임한다. 둘 다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중심세력이다. 그렇지만 모두는 깊은 상처가 하나씩 있다. 산업화 세력은 부패의 상처가 있다. 차떼기의 오명이다. 민주화 세력은 무능의 상처가 있다. 현 정권의 실상이다. 그래서 서로는 그것을 보완하고자 한다. 여당은 유능한 민주화 세력이 되고자 한다. 고건씨나 정운찬씨 박원순씨 영입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야당은 깨끗한 산업화 세력의 이미지를 쌓으려 한다. 컨테이너 당사도 그런 일환이다.

결국 내년 대선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마지막 대결이 될 듯도 하다. 그 속에서 어떤 화두가 생성될지는 모르겠다. 결국 현재의 가장 큰 문제를 찾아내어 규정지어야 한다.

현 상황은 여러 문제가 복합되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다. 그 문제에 대한 반작용이 대선의 화두가 될 것이다.

대선의 화두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갈등'일거다. 좌우, 동서, 상하, 남북 간의 갈등.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노사간의 갈등. 지금은 갈등의 시대다. 딱히 정권의 잘못이라고 몰아붙이기는 어렵다. 사회 발전 단계상 필연적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속되선 안된다. 나라 전체가 주저앉고 만다. 지금은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다음 정권의 첫째 임무는 갈등의 치유다. 그렇다면 대선화두는 평화이어야 한다. 갈등을 치유할 정치세력 말이다. 갈등 치유의 적임자는 갈등의 최대 피해자다. 당했기에 고칠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가 적임자다. 최대 피해자였다. 그러면서도 용서와 화해로 노벨평화상을 만들어낸 정치세력이었다. 평화를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다. 이제 광주가 나서야 할 때가 된 듯하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기아차 사주기' 보답이 파업강행인가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난 18일에 이어 27일 또다시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기아차 노조는 28일과 8월 7~10일에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달 6일까지 조업을 중단하고 여름휴가에 들어감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는 정상조업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는 그동안 기아차 노조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국가경제가 처한 어려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 상황 등을 들어 파업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주·전남 경제단체들도 "지역경제의 상황이 여타 지역과는 크게 열악한 만큼 광주공장만이라도 파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달라"고 주장했다. 지역민들도 지역경제의 고통을 호소하며 파업자제를 당부해 왔다.

더욱이 지역민들은 기아차가 어려울 때마다 '기아차 사주기' 등 기아차 살리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왔다. 기아차가 부분파업에 재돌입한 27일에도 광주시민들은 '범시민 기업 사랑·우리 지역 생산제품 사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그러나 기아차 노조는 지역민과 여론의 호소에는 아예 귀를 닫고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이는 나만 배부르면 국가나 지역사회, 그리고 회사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극히 이기주의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고비마다 기아차 사주기에 발벗고 나선 지역민과 지역 상공인들에 대한 배은망덕한 짓이다.

애써 일궈놓은 기업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무너지는 그 한 순간은 고객, 소비자의 외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기아차 노조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역민은 기아차의 가장 큰 소비자요 고객이다. 제 나라, 제 지역에서 안 팔리는 차가 수출이라고 제대로 될 것인가.

지역민의 끊임없는 애정에 대한 보답이 고작 파업인지 기아차 노조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도덕성 시비로 번진 김 교육 '논문 파문'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민대 재직 시절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논문을 2개의 연구 실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논문 표절 의혹'에서 촉발된 사태가 도덕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논문 중복보고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했지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다. 청와대도 비슷한 입장이지만 파문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한나라당은 김 부총리 논문 파문이 참여정부의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처음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관망세를 보였던 여론도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김 부총리는 논문 중복 보고에 대해 '도덕적 책임'이라기 보다는 실무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의 지원금을 탄 뒤의 최종보고서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약속된 논문실적을 올린 상태여서 실적을 부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학자가 같은 논문을 별도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한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BK21은 정부가 수 조원의 예산을 들여 고급 연구 실적을 축적,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다. 일부 대학이나 교수들이 그동안 엄청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연구실적을 부풀려왔다는 의혹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

중복 논문으로 연구실적을 부풀린 사례가 비단 김 부총리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계의 수장은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김 부총리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관리상 책임'만으로 항변하기보다는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나야말로 교육 수장으로 적격'이라고 큰 소리칠 것인가.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문 응 주

장마철 노인 건강 민간요법 의존 말라

"아이고 허리야… 비만 오면 무릎이 콕콕 쑤셔서 일어날 수가 없어"

여름 장마철 병원은 "아이고 허리야"를 호소하는 노인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섭씨 30도를 맴도는 기온, 80%에 육박하는 습도는 젊은 사람의 체력도 떨어뜨리는데, 하물며 신체적 저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병원을 찾는 노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식의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며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 골격에도 세월의 주름살이 생겼을 뿐입니다" "피부의 주름은 통증이 없지만 골격의 주름살에는 통증이 따를 뿐이에요"라고 그들을 위로하곤 했다.

특히 장마철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절 통증을 없애는데 좋다는 보양식품과 약, 민간요법들이 기승을 부린다. 실제 병원을 찾는 노인들의 대다수가 '몸에 좋다'는 이유로 이들을 섭렵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통증이 사라진다고 광고하는 민간요법이나 대체의학에 현혹되어 병이 악화되도록 놔두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주름진 뼈나 관절의 통증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증을 없애기 위해 잘못 먹은 약이나 민간요법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무릎 아픈 약 잘못 먹었다가 고혈압·당뇨·심장병·위장병·간경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벼룩 잡으려다 초가를 태운 격이다.

더구나 통증이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바르는 그 순간뿐 이다. 약을 끊으면 그 전보다 더 심한 통증이 찾아와 할 수 없이 또 약을 찾게 되는데 이게 바로 '중독'이다.

바꿔 생각하면 '통증'이란 고장 난 뼈나 관절이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중요한 '신호'이며 치료의 중요한 지침과 척도가 된다. 그런데 통증을 우선 없애보겠다는 생각이 고장난 뼈나 관절의 '호소'를 틀어 막아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할 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뼈나 관절의 상태에 대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한다.

여러 가지 약들을 테스트한 후 본인의 병력과 체질을 고려해 가장 맞는 치료제를 찾아 사용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 남발되고 있는 비과학적인 치료방법들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음도 물론이다.

노인들에게 '하루 40분'을 목표로 걷기 운동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시작하면 하루 40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더운날씨로 산책이 부담스럽다면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찾아 온몸의 모든 관절과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수영을 하는 것도 좋다. 물속에서 걷고 모든 관절을 많이 움직여주시는 것은 아주 좋은 물리치료이다.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여름 장마철이 계속되고 있지만 '방학인 손자와 놀 수 있어서' '가족과 나들이할 수 있어서' '맛있는 과일이 있어서' 즐거운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더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정형외과 원장〉

기 고

한 병 선

'교장공모' 확대 왜 필요한가

사례 1, "학생들과 교사들이 반대하는 수학여행 지역을 왜 고집하십니까?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학생들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행하면 큰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나는 옷 벗기 싫습니다." "교장 선생님, 사고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나는 책임 못 집니다."

사례 2,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문지도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아이들과 인사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그리고 생활지도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됩니다. 우리학교 아이들은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유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 그럴수록 아이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요?" "내가 옛날에는 아이들을 호되게 다뤘어요. 그 때 매 맞은 녀석들이 지금도 만나면 인사를 해요. 공부 잘했던 애들은 얼굴한번 안 내밀어요. 학생들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교장 선생님,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안됩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사례 3, "학운위에 안건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안건이라고요? 무슨 안건입니까?" "학교생활규정에 학생들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있습니다." "왜 학교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학교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조항을 고치자는 것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정년퇴직한 후에 제출하세요."

사례 4, "직영급식은 '내 아이 내가 먹이기'와 같은 개념입니다. 즉 부모마음으로 먹이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왜 이러세요." "학부모들이 열심히 돕겠습니다. 충분히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일 많고 귀찮은 짓을 누가 합니까? 직영급식 절대불가입니다." "교장 선생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들 입장을 고려해 보시지요. 오히려 교장 선생님이 먼저 하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대불가입니다. 나는 책임을 무서워하는 교장입니다. 이제 됐습니까?" "……"

왜 교장 공모제가 필요하며 확대되어야 하는가. 해답은 간단하다. 위의 사례들을 보고 판단해 본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현행 승진제 교장 임용제도는 상명하복과 복지부동만 잘하면 쉽게 교장이 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이 교육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현상유지가 최고의 경영능력이 될 뿐이다.

교장은 학교의 경영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무소신과 복지부동으로 일관한다면 누군들 교장을 못하겠는가. 지금까지 교육혁신을 부르짖으면서도 학교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장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교장은 새로운 교육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공모제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교육평론가〉

無 等 鼓

재첩 분쟁

강 하구에 사는 이매패(二枚貝) 중 재첩이란 게 있다. 백합 목의 민물조개로 모래가 많은 진흙 바닥에 터를 잡고 산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양만과 섬진강 하류의 특산물로 꼽힌다.

크기는 2.5㎝ 정도로, 유기물·플랑크톤·조류 등을 걸러 먹는다. 지역에 따라 가막조개·강조개·갱조래·재치라는 방언이 있다.

재첩은 양식이 되지 않는 패류다. '거랭이'라는 도구로 강 바닥을 훑어 가며 긁어 올리는데, 재첩 캐는 소리는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물살을 거스르며 '다라'를 끄는 아낙의 모습은 정겹고 아름답다.

허준(許浚)이 편찬한 '동의보감'(東醫寶鑑)엔 재첩이 간 질환과 황달 치유에 좋으며, 위장을 맑게 한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효능은 해독작용을 촉진하는 타우린(taurine)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훗날 밝혀졌다. 해장국·수제비·숙회·덮밥·전으로 먹는데, 요즘엔 웰빙 바람을 타고 '액기스'로도 많이 팔린다. 산지 가격은 30㎏당 10만원 내외라고 한다.

이 재첩이 어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분쟁'을 촉발시켰다. 즈믄 세월 재첩을 잡아 용돈이며 먹거리를 해온 광양만 어민들이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연간 생산량 700t, 100억 원대의 소득원이 단속대상인 까닭이다.

분쟁의 초점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汽水, 염분 농도 0.5~30%) 지역을 하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바다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다. 광양시는 지금껏 '내수면 어업법' 등을 적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최근 '수산업법'에 근거해 광양만 '서천' 수역을 바다로 인정,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양시는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항소할 움직임이라는 소식이다.

재첩에 '기대여' 사는 주민이 8천여 세대가 넘는 점을 고려, 전향적인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피서지 노래방 방음 시설 갖춰야

가족들과 함께 3박4일간 서해 해수욕장과 근처 계곡으로 피서를 다녀왔는데, 노래방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다 돌아왔다.

텐트를 쳤는데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노랫소리가 해수욕장 여기 저기서 끊이질 않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가족끼리 편하게 쉬겠다고 찾아왔는데, 짜증이 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하루 이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름 피서가 시작된 이후부터 끝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해당 자치단체는 피서지에서 방음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노래방 영업을 하는 행위를 철저히 막았으면 한다.

단속 근거가 없다면 피서지를 찾는 관광객 및 인근 주민들을 위한 조례라도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다.

▲박미영·광주시 남구 행암동

오토바이 운전자들 틈새 운전 삼가해야

중앙선과 신호 대기중인 차량들 사이로 틈새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다.

오토바이 배달 서비스 이용자들이 늘면서 이같은 운전자들이 많아졌다.

이들 운전자들이 지날 때면 여간 불안하다.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히지 않을까, 보험에도 들지 않는 오토바이가 많다는데 다치면 내가 보상해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여간 불안한게 아니다.

바쁘게 배달해야 하는 사정은 이해 하지만 그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차량들 또한 적지 않다.

사고 위험도 높고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불안함을 주는 틈새 운전, 단속 기관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김태민·광주시 북구 용봉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